

목포시·신안군 통합 '순항중'...지역 소멸위기 대응

주민 교류 확대 공감대 형성 주력 75개 상생과제 통합 로드맵 제시 경제과급효과 1조9000억원 전망 양 시군 통합추진공동위 운영

목포시가 인구감소 등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과의 행정통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읍면동간 자매결연, 농촌 일손돕기, 신안농산물구매, 축제방문 등 양 지역 주민간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행정구역 통합 효과분석 연구 용역 발주, 주민 편의 위주 상생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통합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오고 있다.

목포시는 시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안군 14개 읍면이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일손돕기, 이마용 봉사, 축제방문 등 교류 활동에 201회, 4000여명의 참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도 자매결연 읍면동간 교류를 활

발하게 전개하면서 사회단체까지 교류를 확대 추진해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간 통합 활동 기구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태욱)에 홍보분과 청년분과를 신설, 위원을 98명으로 확대하고 양 지역 청년위원들과 함께 통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장광욱)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목포신안 청년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통합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제3기 어울이카 데미 운영 △'섬' 찾아가는 나눔봉사(이마용봉사 등) △추석맞이 신안군 귀성객 음식봉사 △목포항구축제 신안 우수 농수산물상생장터개설 △통합 홍보 TV광고 제작 송출 등 목포와 신안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양 지역 주민이 통합에 버금가는

효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상생과제 발굴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시는 신안군과 협력해 교통,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광역단위 추진 가능한 상생협력과제 26건 발굴 25건을 채택하고 오는 9월에는 상생협력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양 시군 단체장간 업무협약을 체결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과제는 주민 파급효과나 만족도, 이행방안 등에 대해 공동 실무협의체 회의를 거쳐 협의·확정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신안 섬 주민 편의 화장로 증설(1기) △목포·신안 관광상품 공동개발 △신안군 농산물 우선구입 △목포·신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다.

시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용역을 2023년 5월 발주해 지난 4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바 있다.

보고회에서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

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 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여름방학 대학생 공직체험 강진군, 8월2일까지 진행

강진군이 2024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공직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2일까지 진행되는 '여름방학 대학생 공직 체험' 프로그램에는 총 50명의 강진군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공직 체험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강진군정의 다양한 업무와 현장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비 마련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강진군 분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군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 학생들은 20일 근무에 주휴수당을 합쳐 총 189만3120원을 받게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업무에 대한 체험을 통해 미래의 공직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색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에 냉장고 72대 기부 NH투자증권·농협재단

강진군이 최근 강진군청에서 NH투자증권(부사장 김용기)과 농협재단(단장 김민기)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냉장고 기탁식을 가졌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박종탁 전남본부장, 농협은행 정재현 전남본부장, 강진 관내 농축협 조합장 전원이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 그룹으로서 다양한 농가 지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농촌마을 공동체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의 조리 편의성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 선정된 군 지역의 농촌마을에 냉장고를 지원하는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사업 실시 이래 강진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NH투자증권은 강진군에 1억원 상당의 양문형 냉장고 72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역대 지원량 중 최대규모다.

강진군은 11개 읍·면 마을경로당 341개소의 냉장고 노후도를 전수 조사해 이중 72개소를 선정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폭 교체했다.

박종탁 농협 전남본부장은 "강진군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정책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대비한 범농협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NH투자증권과 농협재단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줘서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강진군 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완도군, 8월18일까지 운영

고운 모래와 해송 숲, 탁 트인 청정 바다를 자랑하는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13일 개장해 8월18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 명사십리와 보길 중리 해수욕장 등 10개소의 해수욕장은 19일 일제히 개장한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5년 연속 획득했으며 세계 5000개 해수욕장 중 10개소만 지정하는 '우수 해수욕장'으로 꼽혀 'Special mention' 상을 받았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완도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인명 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 및 환경 요원 등 140여명을 채용하여 피서객 안전 확보와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해양치유를 주제로 하는 모래 조각품 전시와 플라잉 보드 쇼(8월10일), 비치발리볼 대회(8월3~4일), 패들보드와 카약 등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8월3~18일),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8월9~10일), 플로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8월3일에는 명사십리에 위치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콘서트'를 열어 피서객들에게 여름밤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인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이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치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 증정과 8월31일까지 주요 관광지 무료·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후 완도타워와 장보고기념관을 찾으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완도타워 모노레일(2000원), 짚라인(3000원), 청해포구 촬영장(20%) 등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군 병영면 관계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폭염 대응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병영면, 여름철 폭염 대응 당부

어느 해보다 길고도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가운데 양은희 강진군 병영면장과 병영면사무소 직원들이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병영면 공무원들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폭염재난예방 물품인 식염 포도당을 마을별로 배부하고 동시에 폭염 행동 요령과 함

께 진드기 예방관리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강진군 보건소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2023년 강진군 온열질환자 신고 수는 222명이며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전남에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

개 감염병도 본격화되며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하반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은희 병영면장은 병영면 분회 경로당을 찾으신 50여 명의 어르신들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 60여 명에게 식염포도당을 나눠주며, 폭염주의보 발령 시 외출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고, 마을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속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 체계 운영

해남군이 긴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인해 여름철 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19일까지 2주간 공공학교급식 식품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위생 및 급식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관내 식품납품업체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업종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등 식품 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 지역 초·중·고교 24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이들 학교에 공통적으로 납품된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실시하게 됐다.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수칙, 달걀 등 식재료 취급요령, 개인위생수칙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한다. 16일까지 관내 종합병원 등 12개소에 대해 냉각탑수 및 냉온수 균 검사와 수도시설 소독 및 청소방법 지도가 이뤄진다.

12일까지는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수 비브리오팀 검사도 실시되고 있다. 관내 39개소가 대상으로 수족관 물을 채취해 비브리오팀 검사와 함께 비브리오팀증 예방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풍수해 감염병에 대한 군

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풍수해 감염병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모기 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파상풍·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모기를 통해 퍼지는 감염병은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 물릴 위험을 최소화 한다.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침수 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